

제13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 일 시 : 2015. 10. 13(화) 10:0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김 연, 김용철, 박영화, 설 휘, 이낙경
정영숙, 정 현, 호해란, 황인철
- ◆ 안 건 : 미술작품 6건 10작품(조각 7, 부조 2, 미디어 1)
[신규 5건, 재심 1점]
- ◆ 결 과 : 승인 9작품, 재심 1작품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2015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위원 9명중 9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위원분들 의견대로 첫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다 하셨으면 작품별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작품이 11차, 12차 계속 부결되었었는데요. 부결된 내용이 있습니까
- 5페이지에 있습니다.
- 기존 작품이미지랑 변화된 작품을 보면 훨씬 단순해지고 공간에 맞게 재조정된거 같습니다.

- 그동안 심의 들어오면서 많이 반영되어진거 같습니다.
- 엘리베이터와도 잘 맞게 위치나 크기도 조정된거 같습니다.
- 배경에 타일은 전과 후가 약간 다른데요. 뭐가 맞는건지 텍스처가 달라보이는데요.
- 색이 잘못 나온거 같기도 합니다.
- 일반적으로 이럴땐 배경들이 포천석으로 할텐데 질감을 너무 살린 느낌이 듭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숫자를 기입했는데요. 두 번째 작품은 내면의 아이, 꿈의 도약입니다.
- 굉장히 가늘어서 불안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작업자가 안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는건지.
- 가늘어서 불안하기는 한데 보통 쇠파이프가 대나무에 중간마디가 있듯이 파이프 중간에 마디가 있네요. 시각적으로 긴장감이 좀 드네요.
- 가격은 적정한지 모르겠네요. 측면이 25cm이고 높이가 7m가 넘는데... 위험하지만 앓다면 날렵해 보이기는 한데요
- 이 작가의 작품을 아는데요. 오래전 작품이 나왔네요. 기술적인 문제나 안정적인 문제보다 조형적인 부분등을 보셔도 될 듯합니다.
- 작품은 좋은데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평면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사람이 지나가는 길 중간에 있어 보이는데요. 중간에 나무가 심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관계가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요.
- 작품은 구역내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구요. 나무는 없고 가로수가 있는데요

- 4페이지에 보면 투시도에 위치가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랜드스케이프 플랜이라고 조경과의 관계를 같이 볼 수 있는 플랜이 나오면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면 2번 두번째 작품으로 넘어가죠
- 3D프린트로 출력한건데요. 참신하긴 한데 재료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플라스틱 같은 겁니다.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강도가 엄청 약합니다.
- 실외에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실내에 있으면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 3D프린트로 제작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두께같은 건 안 나왔거든요
- 흔들리는게 굳이 나쁠거 같지는 않은데요. 열기구니까요. 영구성이나 보존성이 문제인데요.
- 반영구성은 있다고 봐야죠. 실내에 있으니까요
- 미술가 입장에서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도는 좋습니다. 재료비는 적게 들거 같은데..
- 안에 조명 등같은 역할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요. 야경풍경이 좀 어둡게 되어 있는데요.
- 밝기는 건물내에서 알아서 할거 같은데요. 조명을 설치하면 작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거 같고.
- 3D로 조명기구도 많이 합니다.

- 조명식으로 하다가 작품이 아니라 진짜 조명기구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죠. 규모가 만만치 않네요. 작품의 크기가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데 가격이 크면 생각의 크기도 있어야 하는데 요. 확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텐데요. 행복의 비상 의견을 주시죠
- 두 작품이 한 작가의 작품인가요?
- 작가는 다릅니다.
- 역시 세련미가 다르네요.
- 행복의 비상 의견을 주시죠.
- 이전에 봤던 작품이랑 비슷해서 무난한 거 같습니다.
- 의견없으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플러스”입니다.
- 3.5m짜리 작품인데요. 재료가 불분명한데요. 26페이지하고 브론즈로 되어 있는데 2억 5천입니다. 가격 책정이 좀 높은 거 같습니다. 전체가 스테인리스 스틸인거 같은데요.
- 작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형적인 방법은 나무로 슬 하게 해왔던 작가가 있는데요. 재료만 다르게 바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서 한거지 예술성 같은 거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요새는 파이프를 가지고 작업을 편하고 쉽게 하는 거 같은데 대세인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작품입니다. 처음에 이 형태가 나온 이후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예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요. 배점기준인데 독창성, 예술성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데 건축물과의 조화부분은 사실 도서 상으로는 심의가 어렵습니다.

○○○ 이 작가는 항상 이런 스타일로 하지 않나요

○○○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가 많습니다. 그럼 한번 작가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작가 이력 확인 >

○○○ 그 작가가 맞습니다. 이전과는 다른데요. 말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안보입니다. 각자 채점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헬로 헬로입니다.

○○○ 너무 많이 본 작품이라서요. 그런데 조명 위치가 다리 양쪽 사이에서 올라오는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 조명위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같긴 합니다. 가운데서 올라오는 조명이 오히려 흉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 조명을 빼는 걸 단서로 달아도 좋을 거 같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면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미디어 작품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전각의 형태인데요. 제일 독창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밑에 부조인가요. 그림이 잘 안보이는데요.

○○○ 돌에 그림을 파서 샌딩처리한 거 같습니다.

○○○ 다 좋은데요. 이런 작품은 세부적인 디테일이 중요한데 하부보강 등이 다 보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이걸 시공에 필요한 내부구조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마감처리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 도장같이 나오는 겁니다.
- 45페이지 같이 나온다는 거군요.
- 더 의견 없으시면 최종 채점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진행>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

<위원장>

- 오늘은 10개 작품 중 3-2번 사랑플러스 작품이 탈락되고 5번 헬로 헬로는 조명에 대해 권장사항을 부기하여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작품은 모두 정상 승인처리 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1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